

##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김 상 준\*\*

사회과학의 전문개념으로서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의 전문 학자들뿐 아니라 정부 각 부문 정책 담당자들 및 금융과 경제계의 분석가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흔치 않다. 사회적 자본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결과 이 개념을 둘러싼 혼란도 아울러 증폭되고 있다. 세계은행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각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정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만능약으로 보지만, 그와 정 반대로 이를 정실과 부패의 핵심 고리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개념이 금융적 투자와 사회적 관계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개인간 사회관계와 집단적 사회 관계를 뒤섞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개념의 이론적 엄밀성에 대한 회의와 비판, 그리고 이 개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함의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의 원인을 그 이론적 원천, 즉 이 개념을 확립한 피에르 부르디외, 제임스 콜만과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로버트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의 내적 한계에서 찾는다. 부르디외와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이 글이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이라 부르는 이론적 전제에 기반한다. 이 이론적 전제는 사회적 관계 맺음의 동기를 협소하게 일원화함으로써 비영리적, 공공적, 탈물질적 사회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게 한다. 퍼트남은 이 개념의 적용범위를 시민적 정치문화로 확대시킴으로써 이 한계의 극복을 시도했지만, 이 개념의 내용은 콜만과 부르디외의 그것을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개념의 내용이 그 적용대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퍼트남은 이러한 한계를 사회적 자본의 개념 내부에 근 일천년 전으로 소급되는 '시민적 전통'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해보려 하였지만, 퍼트남의 '전통'이란 탈맥락 적인 박제품일 뿐 아니라, 행위동기의 환원론에 역사적 환원론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에는 결코 서로 화합될 수 없는 두 개의 환원론적 오류가 병립하게 되었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행위동기 환원론), 역사적 환원론

\* 이 글은 2002년 경희대 신입교수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다. 이 글에 대한 그간의 진지한 논평과 의견에 감사한다.

\*\*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조교수.

## I. 문제제기

최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산업분야’가 될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원래 부르디외와 콜만에 의해 사회학적으로 체계화된 이 개념은 (Bourdieu, 1986a[1983]; Coleman, 1988, 1990), 이후 퍼트남, 후쿠야마 등에 의해 확장·응용되면서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다(Putnam, 1993, 1995, 1996, 2000; Fukuyama, 1995, 1999; Dasgupta & Serageldin, 2000; Baron, Field & Schuller, 2000; Lin, Cook & Burt, 2001; Huntington & Harrison, 2000). 이제 이 개념의 유통 범위는 학계의 울타리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은행이 저개발국 개발사업의 키워드로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거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의 핵심 아젠다인 ‘워싱턴 컨센서스’에서도 이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단적으로 시사해준다(World Bank, 1997, 1998, [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 Fine, 2001).

그 피치 못할 결과는 개념적 혼란의 만연이다. 우선 사회적 자본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 상극적인 해석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 정치발전, 문화성숙을 한번에 가져다주는 요술망망이요(Putnam, 1993; Fukuyama, 1999),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알선(trafficking), 공갈협박(racketeering), 약탈횡령(plundering), 부정이득(looting), 또는 정실주의(favoritism)”의 원천이다(Platteau, 1996: 799). 이렇게 보면, 이 개념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퍼트남의 *Making Democracy Work*(이하 *Democracy*)은 자기반증적인(self-refuting) 저작이다. 이 저작의 성공 이유는 정치와 경제의 성공과 실패를, 사회적 자본의 존재와 부재로 설명하는, 명쾌한(?) 단순도식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총체적 실패의 사례로 든 이태리 남부의 인적연결망 역시 플라토의 시각에서 보면 명백하게 ‘사회적 자본’이다. 결국 이태리 남부는 사회적 자본의 부재가 아닌 과잉으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논지를 지탱해주어야 할 핵심사례가 논지를 뒤집고 있기에 자기반증적인 것이다.

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자본 개념이 금융적 투자(financial investment)와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를 혼동시킨다는 비판이(Bankston & Zhou, 2002; Smith & Kulynych, 2002),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개념의 사용자들이 개인간 사회적 관계와 집합적 정치문화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Portes, 2000). 사회적 자본이 개인적 속성이냐 집단적 속성이냐 하는 문제는 이 개념의 측정을 위한 정확한 척도가 무엇인지 혼란을 야기했다(Portes, 2000). 이 개념의 대중적 성공에 깔린 이념적 함

의에 대한 의혹과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사회적 자본이란 자본주의의 지배력이 인간간의 사회관계 전반으로 확장되어가는 현상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자본주의 변호론의 새로운 변종이자, 서방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문화적 무기다(Fine, 2001).

이러한 혼란과 의혹은 이 개념의 정확성과 유용성, 정당성 모두에 대한 회의를 유발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차원의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변별성 없이 편리한 대로 갖다붙이는 의미 없는 개념이거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취향에 따라 비난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미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이데올로기적 고무줄이 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냉혹한 ‘자본관계’로 귀속되고 만다는 냉소적 의미에서의 풍자어로 추락하고 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렇듯 다양한 차원에서 노출되고 사회적 자본 개념의 문제점들이 비롯되고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해보려 한다. 이 작업의 핵심은 이 개념의 이론적 구축자인 부르디외-콜만, 그리고 이 개념을 정치문화 쪽으로 확장한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에 비추어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 세 이론가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회적 자본 개념을 창안하고 널리 유포시켰을 뿐 아니라, 이 개념이 터한 주요한 사상적 계보가 이들의 이론 속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작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이 개념이 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입지점과 함께 그 한계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 II. 사회적 자본 개념이 출현한 계기와 세 이론가의 이론적 입지

체계적인 학술 개념으로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 체계화한 것은 부르디외이지만, 그 용어 자체의 최초의 사용자와 사용시점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후쿠야마는 미국의 리다 하니판(Lyda Hanifan)이 1916년의 한 논문에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고 보고했지만(Fukuyama, 1999), 엄밀히 정의되지 않은 느슨한 비유적 의미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의 용례는 조사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확히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그 내용을 지적하고 논의한 경우도 존재한다. 일례로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일시적 물적 자본(temporary physical capital)과 항구적 물적 자본(permanent

physical capital)이라 분류하였을 때(Marshall, 1890), 그가 말하는 항구적 물질적 자본이란 지금 논하는 사회적 자본과 유사하다(Woolcock, 1998).

그러나 이러한 용례의 시원보다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출현하게 된 이론적 계기가 무엇이다. 그것은 신고전과 경제학의 개념들이 인간관계, 사회관계라고 하는 사회학적 연구주제로 침투해 들어온 데 있다. 이는 1961년과 1963년 미국의 경제학자 존슨, 쉘츠, 그리고 베커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비롯되었다(Johnson, 1960; Shultz, 1961, 1971; Becker, 1963, 1964). 흥미롭게도 부르디외 역시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Bourdieu, 1967, 1990[1970]).

사회적 자본을 논하면서 인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개념의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개념들을 통해서 자본 개념이 순수한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전통적 경제학의 울타리를 일단 뛰쳐나온 자본이라는 개념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지점은 사회적 자본일 수밖에 없다. ‘사회’란 가장 포괄적인 사회과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문화적 자본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다 1983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Bourdieu, 1986a[1983]). 콜만의 경우, 그가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논문의 제목 자체가 “인적 자본 창출 속에서의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일 만큼 그의 사회적 자본 개념과 쉘츠, 베커의 인적 자본 개념간의 연관 관계는 뚜렷하다(Coleman, 1988). 원래 ‘합리적 선택’이란 경제학의 이론적 전제인데, 이 전제가 경제 현상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 적용되면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사회과학 일반의 방법론의 하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고, 콜만은 이러한 일반 방법론 으로서의 합리적 선택론의 이론적 대표자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에는 마르크스주의적 자본주의 비판의 논조가 깔려 있다. 그러나 그가 자본 개념을 경제 영역보다는 교육, 문화, 사회 방면에 주로 응용하고 있는 것은 베버의 영향이다. 결국 콜만이 대표하고 있는 미국계열에서 인적 자본-사회적 자본 개념은 신고전파의 한계효용 이론을 인간관계와 사회제도에 적용시킨 신희용주의(neo-utilitarianism) 또는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이론<sup>1)</sup>에서 비롯한 것이고, 부르디외의 문화적

1) 경제학계의 주류인 신고전파와 도전세력인 신제도주의 학파는 일견 대립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론적 근거를 공유한다. 신제도주의 학파는 신고전파가 비효율적으로 보아 여백(residual)으로 남겨놓았던 불완전시장 상황과 신고전파가 자신의 이론 영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던 비시장적 상황에 대한 해석을 공리주의적(즉 한계효용이론) 개념으로 완성시켰을

자본-사회적 자본 개념은 마르크스-베버의 이론체계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적 자본 개념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문화적 자본 개념은 내용상 유사성은 있지만 출현 계기와 맥락은 상이하다. 자본 개념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전자는 자본의 강화를 위해, 후자는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 존슨, 솔츠, 베커는 주류 경제학자들로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인적 자원이 가지는 자본적 가치에 주목하였던 반면, 부르디외는 현대사회의 계급적 차등이 문화적, 교육적 가치의 차등적 전수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콜만과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개념 사이에도 역시 비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콜만의 그것이 특별한 비판적 예각 없이 현상의 설명에 치중하는 반면, 부르디외의 그 개념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포함하는) 현대사회의 사회관계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내장되어 있다.

부르디외와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이렇듯 상이한 이론적 전통과 계기들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이 두 입장의 이론적 구도는 묘하게도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양자 모두 구조와 개인, 거시와 미시를 통합, 혼용할 뿐 아니라 이 통합된 틀을 단일한 원리로 설명한다는 동일한 이론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부르디외는 마르크스의 입장과 베버의 입장을 혼용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 이론에서 토대-상부구조의 이원성, 베버의 도구합리성-가치합리성의 이원성을 이 글에서 말하는 <자기이해(self-interest)의 단일동기론>으로 혼용시키고 있다. 그의 아비투스(場, 필드)와 행위자(자기이해의 코나투스)를 혼용시키는 축매인데, 그의 ‘자본’이란 바로 아비투스의 자산이다. 반면 콜만은 구조와 개인을 ‘자기이해 행위주체의 연결망’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한 줄로 연계시킨다. 결국 이 두 이론가는 사회적 행위를 일원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여기서 그 일원(一元)이란 ‘자기이해의 행위동기’로 집약된다.

이들 두 이론가가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시키는 설명 방식들은 매우 현란하고 충분히 복잡적이어서 독자의 주의를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바로 그 때문에 이들의 모든 복잡한 이론과 설명이 결국 자기이해라는 단일 동기로 환원되며, 이 점에서 양 이론가의 입장이 합치된다는 이 글의 논점이 일견 충격적일 만큼 생소하고 그만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반대로 왜 부르디외와 콜만만큼 정치적으로나 이

---

뿐이다. 신고전파가 이론적 완전 시장 상황으로 그 설명 범위를 제한했다면, 신제도주의, 신흥주의 학파는 이를 인간 생활의 전면으로 확장한 것이다. 사회적 자본 개념의 경제주의적 해석자들의 학문적 계보에 신고전파와 신제도주의 학맥이 혼재되어 있음은 이러한 까닭이다.

론적으로 상이한 이론가들의 개념들이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전혀 무리 없게, 마치 완전히 동일한 개념인 것처럼 호환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지극히 상식적 의문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이론도 그 이론의 배경에 깔려 있는 어떤 단순한 전제(theoretical presupposition)가 있으며, 외면적으로 서로 상극적으로 보이는 입장도 이러한 깊은 전제를 공유할 수 있다. 오히려 잘 구상된 이론일수록 그 전제는 간명하면서도 깊은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궁극적 단일동기로서의 자기이해’라는 전제도 그렇다. 이 글의 비판은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이론적 전제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 차원의 비판이 어떤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되지 않기 바란다. 즉 이 글은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자기이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 개념이 도덕적 비난의 굴레를 벗고 일상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의 진보성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김상준, 2002a, 2003, 2004). 문제는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이지 ‘자기이해’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퍼트남은 주로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루소-토크빌의 공화주의적-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을 가미하여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정치문화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 결과 그의 사회적 자본 개념 속에는 상이한 두 이론전통 즉, 정치주의(政體 우선론)와 경제주의(합리적 선택이론, 신제도주의, 게임이론 등 개인적 심리 우선론)가 애매하게 동거하게 되었다. 사회과학의 이론 모델에서 다양한 입장의 동거와 일정한 절충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이한 입장이 절충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동거가 병립이나 절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론적 기준에 따른 일관성을 획득하게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에는 그러한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부르디외와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나름대로 선명한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퍼트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 III.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부르디외는 ‘자본’ 개념을 ‘축적된 역사(accumulated history)’로 요약한다

(Bourdieu, 1986a). 마르크스에게 자본이란 축적된 노동(accumulated labor)으로서의 가치(=상품)이고, 동시에 순환하고 자기 증식하는 가치(=상품=축적된 노동)이다(Marx, 1977). 부르디외는 마르크스적 자본 개념을 경제재(economic goods or assets)로서만이 아닌 교육재, 문화재, 사회재, 정치재 등으로 자유롭게 확장한다. 부르디외는 이렇듯 응용 확장한 자본을 통칭하여 상징적 자본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정치적, 국가적(statist), 문화적, 정보적(informational), 학술적 자본 등이 포함된다(Bourdieu, 1986a, 1986b, 1988, 1991, 1994, 1998). 그는 이렇듯 자본 개념을 경제 영역만이 아닌 범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천의 경제에 관한 일반 과학(a general science of the economy of practices)”을 구축하려는 이론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Bourdieu, 1986a). “실천의 경제,” “일반 과학”이라는 용어는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의 포괄성, 전일성(專一性), 일원성을 예고해준다.

부모 세대의 교육적, 문화적 자원이 계급 재생산에 긴밀히 접합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친 부르디외의 연구들은 잘 알려져 있다(Bourdieu, 1986a, 1986b, 1990[1970]). 이렇듯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전이되는 문화, 교양, 취향의 자산을 그는 문화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자본’은 사적-배타적으로 축적되고 전승되며 증식하는 역사적 실체이다. 문화영역으로 확장하였지만, 개념의 골간에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적 함의가 남아 있다. 동시에 그의 자본 개념은 마르크스의 자본처럼 이윤추구, 이윤증식적이다. 부르디외는 자본 개념을 상징적 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원래의 경제적 자본 개념이 갖는 이윤추구, 이윤증식의 성격을 상징적 차원의 이해추구로까지 확장시켰다.

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이란 현실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집합으로서의 상호 면식과 인식이 제도화되고 지속화된 관계망을 소유하는 것—즉 특정 집단에의 멤버십—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제도화된 관계망은 집단적으로 소유된 자본의 후원, 즉 신용을 부여해주는 보증을 소속원에게 제공한다”(Bourdieu, 1986a: 248-249). 그의 문화적 자본 개념이 주로 부모와 그 부모의 관계망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이 자식 세대로 전승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소속이 해당 당사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그의 자본 이론은 ‘실천의 경제에 관한 일반과학’의 정립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이 말은 그가 인간의 행위 전반을—즉 경제적, 문화적, 미학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 전반을—축적된 역사, 축적된 노동의 순환적

자기증식의 논리로써 일관되게 설명해내겠다는 이론적 야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을 그 자신의 표현에 따라 간략히 요약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본은 상호전환이 가능한데(fungible, convertible), 이러한 “모든 다양한 자본의 뿌리는 결국 경제적 자본”이고 다른 모든 종류의 자본들은 결국 “변형되고 위장된(transformed and disguised) 형태의 경제적 자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문화적, 사회적 자본은 이렇듯 그 자체가 “결국 경제적 자본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잘 숨기는(conceal) 만큼 더욱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Bourdieu, 1986a: 252).

부르디외가 보기에 문화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그(경제적) 뿌리를 교묘하게 위장하고 그 내부의 계산관계를 극히 복잡하고 내밀하게 은폐하게 되는 경향은 자본의 공공연한 계급적, 세대적 이동을 금지하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가치, 운영원리와 연결되어 있다(Bourdieu, 1986a: 254).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이 주장을 풀어보자면, 봉토(경제적 자본)와 작위(상징적 문화적 자본)를 공공연하고 합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었으며 신분적 불평등이 제도화된 가치였던 봉건사회에서는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보증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굳이 경제적 자본의 획득과 결합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위장하고 은폐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사회가 평등화될수록 문화적, 사회적 자본은 그 경제적 동기를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위장하고 은폐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란 경제적 자본의 계급적 세대적 이동을 위한 은폐되고 위장된 비밀통로들에 다름 아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부르디외가 자본 개념을 비경제적 영역으로 확대시킨 것은 마르크스 이론을 확장했다는 측면과 함께 베버적 관점을 흡수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막스 베버적 관점이란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동력은 경제적 물질적 가치 또는 이해만이 아닌 문화적 정신적 가치 또는 이해로도 이루어져 있다는 시각이다. 부르디외는 여러 가지 상징체계나 문화적 취향, 그리고 사회적 인간관계가 역사를 구성하고 움직여 나가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그의 다양한(상징적) 자본 개념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자본은 상호 전환되지만 다른 모든 자본은 결국 경제적 자본의 은폐된 형태일 뿐이라는 그의 언명은, 비록 그의 자본이론이 매우 탄력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결국은 ‘최종 심급에서의 경제결정’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경제결정론, 또는 경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여기서 한편으로는 부르디외와 마르크스주의와의 관련을, 다른 한편으로는 베버와의 관련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콜만과 대비해볼 때 분명해진다. 콜만은 아주 분명하게 모든 인간의 행위 동기는 행위자의 자기이해의 실현으로 귀착된다고 간주한다는 입장을 명료하고 일관되게 표명하는데 비해,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에서는 이 점이 때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뚜렷이 노출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너무나 매끄럽게(사회학계의 한 동료의 표현을 빌자면 fuzzy하게) 숨어버리기 때문이다.

먼저 마르크스주의와 부르디외의 자본이론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마르크스에서 자본의 주체와 동력이 계급 또는 계급이해인 반면,<sup>2)</sup> 부르디외 자본 개념의 주체와 동력은 개인 또는 자기이해라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에는 계급이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자기이해라는 개념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부르디외에게는 자기이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계급이해라는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 물론 부르디외에게 장(場, 필드)이라는 구조 개념이 있고, 귀속 계급에 따른 통계적 분석을 종종 구사하기도 하지만, 부르디외 스스로 자부하는 그의 이론의 강점이자 요체는 그러한 구조적 집단적 틀 속에서 개인의 행위를 자기이해라는 동기를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 정밀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부르디외는 베버의 서로 다른(물질적 및 이념적) 이해(또는 자본) 개념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양자간의 호환성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 두 이해간의 화해되기 어려운 갈등을 강조하고 있는 막스 베버의 핵심적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다(김상준, 2002a: 25-32). 여기서 베버의 문제의식이란 현실의 ‘경향성(inclinations)’과 ‘필요(needs)’로부터 독립된 도덕적 동기 또는 도덕적 이해를 강조했던 칸트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Kant, 1964, 1993). 칸트와 베버가 보기에, 인간의 동기 또는 이해는, 현실의 경향성과 필요에 구속되어 있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양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부르디외는 “이해와 무관하다는 것(disinterested)은 비경제적인 것(noneconomic)”을 말한다고 하고(Bourdieu, 1986a: 242), 이렇듯 이해와 무관하다는 것은 “사회적 게임(social game)”에 인입되어 있는 한 불가능한 것임을 암시한다(Bourdieu, 1992: 115-116). 결국 부르디외에게 모든 사회적 상황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이해추구로 귀속되고 마는 것이고, 이러한 시각이 그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설명 속에 감출 수 없게 뚜렷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부르디외는 베버의 종교사회학을 “경제적 모델로 [종교계의]

2) 유명한 『자본론』 1권 서문의 다음 구절 참조: “난 자본가와 지주를 결코 장밋빛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개인들이란 오직 그들이 경제적 범주들의 체화, 특정한 계급관계와 (계급)이해의 담지자로서만 다루어질 뿐이다”(Marx, 1977: 92).

특수한 이해(interest)를 폭로(uncover)”하는 것으로 편향되게 요약한다(Bourdieu, 1992: 115). 여기서 더 나아가, 부르디외는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을 연상시키는 『실천이성』이라는 제목의 저술 전체를 통해 인간은 종교, 정치, 윤리의 모든 영역에서 현실적 이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전개한 입론을 뒤집는다(Bourdieu, 1998). 결국 부르디외가 베버로부터 받아들인 것은 경제 외의 영역도 경제적 이해 관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편향된) 교훈이었고,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칸트 도덕철학의 전제까지를 공격함으로써 베버가 칸트에 빚지고 있는 지점의 근원을 지우려 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정리하고 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포괄하는)현대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의 울림을 띠고 있는 그의 ‘자본’ 이론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계 효용의 극대화라고 하는 경제학적 패러다임을 경제 외적인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했던 합리적 선택론과 형태론적으로 합치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판은, 다소 절충적인 방식이지만, 켈훈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가 있다(Calhoun, 1993). 정치적 동기는 상이했을 수 있겠지만, 이론이 형태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했던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이론적 동형구조를 묶어 이를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이라 정의한다. 자기이해 또는 이해가 경제적 영역만이 아닌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궁극적인 행위동기가 되고 있다는 가정을 부르디외와 합리적 선택이론 양자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은 일견 이론적으로 간명하고 강한 설명력을 가진 듯이 보이지만, 현실의 복잡적이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행위와 그 행위동기의 다원성을 빈곤화시킨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약점은 이들 이론이 궁극적으로 동어반복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이들 이론의 설명구조는 먼저 <모든 인간의 행위 동기=자기이해 추구>라는 형이상학적 단정을 설정해놓은 후, 이에 기반하여 <모든 행위=자기이해에 기초한다>는 명제를 전개한다. 즉 명제가 이미 설정해놓은 전제를 되풀이한다. 달리 말하면, 이 입장은 입증해야 할 것을 미리 가정하는 논리적 오류, 즉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a 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를 범하고 있다.

이 입장이 형이상학적 단정에 기초해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입장에서의 자기이해 추구는 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부르디외가 말하는 것처럼 ‘저(底)의식적(infraconscious)’일 수도 있다. 또한 추구하는 이익의 획득 시점은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도 그

순간에는 자기이해에 분명히 부합하는지(스스로에게) 불분명해 보이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을지라도, ‘결국’, 즉 동기의 심연에서든 아니면 그 행위의 궁극적인 시간적 결과에서든, 아니면 실천 과정에 진입되는 필연적인 행위 논리에 의해서든, ‘최종적인 차원’ 또는 ‘최종 심급’에서 인간은 자기이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일견 자기이해와 무관해 보이는 목표와 행위들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들 역시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이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스스로 명료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점을 설명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입장이 자부하는 이론적 강점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모든 행위의 동기는 자기이해로 귀결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의 숙고에 따르면 이러한 단언이 상정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극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입장의 근거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비경험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체계, 즉 형이상학적 단정일 뿐이다.<sup>3)</sup>

이렇듯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증은

3) 이 글의 초안에 대해 한 논평자는 합리적 선택론은 방법론이지 존재론이 아니며 “이해 관계를 인간 행위 동기의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먼저 “그것만이 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가 아닌 다른 동기라는 것을 ‘결국은’ 자기이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합리적 선택이론자들 스스로 강조해온 이 이론의 핵심이요 강점이었다. 예를 들어 영웅적 죽음(heroic death)을 감행하는 행위자 자신은 설혹 자신의 행위동기를 순전한 이타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타심 역시 자기이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Friedman & Hecter, 1990). 이렇듯 사뭇 극단적인 경우들을 포함하는 일체의 인간행위의 동기를 자기 이해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것은 다만 ‘설명’을 위한 방법론일 뿐이지 존재론은 아니다(인간의 실체가 그러한 것이란 말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연구 영역을 순수 시장 행위에 국한시키는 경제학자들이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의 여지가 있다.) 철학적으로 방법론과 존재론이란 그렇듯 전혀 다른 별개로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논평자가 방법론과 존재론이 구분되는 예로 들었던 베버의 방법론 즉 이념형이야말로 그의 존재론, 인식론과 불가분 결합되어 있다. 즉 경험적 현실의 완전한 이론적 재현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적 현실의 이론적 분류를 통해 ‘이념형적’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행위를 자기이해로 설명하는 것은 ‘마치 그렇다고 가정하면’ 현실이 잘 설명되기 때문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모면책도 있을 수 있겠다(합리적 선택론과 흡사한 논리구조를 가진 유전자 결정론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론이 환원론이라는 비판을 모면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도 모면이 되지 못한다. 먼저 그렇게 구성된 이론 자체는 ‘마치 그렇다고’ 하든 정말 그렇다고 하든 자기이해 결정론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 ‘마치 그렇다고 가정’하는 이 이론의 전일적 완결성은 현실이 정말 그렇다는 믿음과 아주 쉽게 호환될 수 있을 것임은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이다.

그 전제를 반증하는 경험이다. 이 경우, 사회적 자본의 한 유형으로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경험적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산층 가정의 주부가 자원활동자(volunteer)로서 사회복지기관에 의탁된 영세한 가정의 장애 아동들을 보살피고 있는 경우를 들어보기로 하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 여성은 그가 보살피주는 장애 아동들과 해당 기관의 직원들과 의미 있고 지속적이며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관계를 맺게 된다. 과연 이 여성은 그러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어떠한 영리적 동기 또는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모든 사회적 자본을 “은폐된 경제적 자본”으로 보는 부르디외적 시각에서 가능한 대답은 아마도 이렇 것이다. 그 여성은 그렇듯 공지적(公知的)인 이타적 행위를 통해 그의 남편의 사회적 신망을 높여 남편의 출세와 성공에 기여하려 하거나, 혹은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수 있다고(이 양 경우의 결과는 그 여성과 그의 가족의 더 많은 경제적 자본의 축적이다). 이러한 대답은 많은 경우 위약적이고 비사실적이다[그러한 성격의 자원활동(volunteering)을 하는 여성들의 다수는 위와 같은 기회 자체가 없는 중산층 하층 또는 저소득층여성들이다<sup>4)</sup>]. 개인적 경험을 볼 때 가끔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체로 보통 이상의 재치를 갖춘 사람들이다. 자신의 그러한 행위에서 어떤 직접적 이해 근거를 찾아보라는 질문 자체가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약적 답변으로 상황을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게 반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 여성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 불우한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다는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 자원활동에 대한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Wuthnow, 1991, 1995), 그녀는 상당한 노역을 요하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자원활동자들은 그 활동을 통해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일방적인 시혜를 봉사라는 말보다 나눔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원활동은 자기만족이기도 하다고 말한다(이강현·김성경·박윤애·김문정, 2003). 그러나, 위쓰노우가 강조하듯, 이러한 ‘자기만족’과 같은 진술들은 활동의 결과 그들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는

4) 이런 사실은 조사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한 경험적 연구는 2002년도 조사대상자 755명 중 8.5%가 월평균 소득 99만원 이하, 25.4%가 100만원-199만원, 35.4%가 200만원-299만원, 27.7%가 300만원 이상임을 밝히고 있다(이강현 외, 2003). 전체 자원봉사활동의 7할가량이 월평균 소득 299만원 이하 소득가구의 중산층 하층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부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이 보인다(조소라, 1995; 박정미, 1995).

가를 밝히는(사후평가 자리에서의) “호혜적 대화(reciprocal talk)”의 미덕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들 행위의 사전(事前)적 자기이해를 논증하는 근거로 곱해해서는 안 된다(Wuthnow, 1991: 95). 덧붙이자면, 칸트가 언급하였듯, 도덕적 의무에 따른 선행이란 기쁨이 수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쁨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의무의 명령에 따라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Kant, 1964: 66).

이러한 경험적 사례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원활동에는 기쁨 또는 자기만족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사전적일 수도 있고 사후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은 이러한 복잡성을 평이하고 상식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 하나 분명한 점은 자원활동자들이 추구하거나 발견하게 되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에서의 가치란 경제적 자본 가치 또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영리적 가치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도덕적 가치라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는 많은 경우 공공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공감(sympathy)’, 또는 롤스가 말하는 ‘합당한 것(the reasonable)’에의 지향 즉 공공적 도덕감(moral sensibility)과 연관되어 있다(Smith, 1976; Rawls, 1971, 1993). 이러한 성격의 나눔 활동과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은 영리적 차원의 자기이해 또는 합리성의 동기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여기서 ‘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성격의 활동에도 영리적인, 사전적 동기 역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활동을 통한 인맥이나 평판을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자원활동 역시 모두 예외 없이 영리적 자기 이해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는 (부르디외 식의) 주장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점에 대한 경험적인 확인일 뿐이다.

자원활동과 기부행위는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광범하고 명백한 사회적 사실이 되었다.<sup>5)</sup> 활발해지고 있는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와 NPOs(Non Profit Organizations) 활동 역시 여기에 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공적영역에서의 사회자본의 성격은 공공적이고 비영리적일 것을 요구 받는다. 이 영역에는 NGOs와 NPOs만 아니라 정부가 큰 구성 부분을 이룬다. 이들 영역이 공공적-시민적 제도의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반면,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자원적 보살핌(caring)과 도움제공(hospitality)의 행위와 사회관계의 영역 역시 매우 넓다. 이렇듯 광범한 사회 영역에서 비영리적, 공공적 동기를 가지고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망 역시 사회적 자본의

5) 한 조사에 따르면 2001년 한국의 기부행위자는 48%, 자원활동자는 16%에 달한다(강철희, 2003).

범주에 속한다.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이러한 비영리적이고 공공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가진 특성을 적절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 IV.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제임스 콜만은 미국 사회학계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진영을 이끌었던 학자다. 콜만에 의하면 “모든 행위 유형은 행위자의 이해 실현(actor’s realization of interests)을 증가시킨다는 하나의 단일한 목적(a single purpose) 속에서 이루어진다”(Coleman, 1990: 32). 이러한 선명한 입장은 그의 저술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콜만이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이론적인 동기와 하나의 정치적-실천적 동기가 작용하였다. 첫째 그는 사회학의 주요관심사의 하나인 규범을 기왕의 주류사회학은 구조-기능 결정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규범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행위의 동력(engine of action)’을 정확히 설명해내지 못해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행위자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행위 동력을 가지고 일정한 규범을 구성하고 합의하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는 사회적 자본 개념이 사회학에서 또 다른 주요관심사인 행위의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또는 행위자(agency)와 구조(structure) 또는 미시적-거시적 차원]간의 연결 문제를 잘 설명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정치적-실천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80년대를 휩쓸었던 보수적 관심, 즉 가족가치나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퇴조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도덕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본 시대적 조류에 그가 함께 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가족가치나 준법질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이 글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그의 이론적 관심에 집중하기로 한다.

콜만은 사회적 자본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즉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으로 보고 있는데(Coleman, 1988, 1990), 이는 효용의 최대화(maximization of utility)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관계의 생산성에 주목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에 일관된 것이다. 콜만의 신뢰에 대한 설명을 예로 들어 이 문제를 부연해보기로 하자. 콜만에게 신뢰란 사회적 자본의 구성 부분이므로, 신뢰에 대한 설명은 결국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과 중복된다. 그는 신뢰를 “위험 조건에서 효용의

극대화(maximization of utility under risk)”로 풀이하며, 이는  $p/(1-p) > L/G$ 의 상황에서 결정으로 요약된다( $p$ =이득을 획득할 확률,  $G$ =기대이득,  $L$ =기대손실)(Coleman, 1990: 99-104). 결국 콜만의 신뢰 개념은 득실 계산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경제적 투자의 비유를 신뢰 일반에 확장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나 신뢰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철학적, 사회학적 정의는 콜만의 계산성에 반(反)한다. 즉 타자와의 관계에서 잠재적 위험 조건이 존재함에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추구하는 이익보다 가능한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믿음을 의미한다(Luhmann, 1979, 1988: 98, 1995; Held, 1968; Lewis & Weigert, 1985; Giddens, 1990). 결국 콜만의 사회적 자본, 신뢰, 네트워크의 개념은 경제적인 의미의 합리적 선택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 있어, 사회적 자본이 포괄하는 전 영역을 설명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점에 대한 비판은 부르디외의 동일한 문제에 대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두 번째로는 행위의 설명근거를 행위자의 자기이해 실현에 배타적으로 두게 됨으로써 콜만은 여러 곳에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자본에서 자기이해의 제재[制裁, 또는 제가(制可), san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Coleman, 1988: S102-108, 1990: 269-289, 318-320 passim.), 우리는 그의 이런 입장을 <제재의 강화=사회적 자본의 강화>라는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등식 역시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제약적이라는 점이다. 콜만의 사회적 자본이론에 대한 필자의 전체적인 인상은 그가 뒤르켐의 제재 중심의 규범론을 합리적 선택론으로 뒤집어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콜만은 방법론적인 전회(轉回)에는 성공했지만, 뒤르켐 규범론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콜만의 규범론은 뒤르켐과 마찬가지로 주로 제재의 강도에 의거하게 되는 것이다. 차이점이 라면, 뒤르켐은 강한 규제력을 설명하기 위해 ‘강한 사회’라는 외적 리바이어던을 도입한 반면, 콜만은 ‘자기이해’라는 내적 리바이어던을 도입했을 뿐이다. 콜만은 규범을 상호 구속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들간의 합리적 타산에 기초한 “포괄적인 신용과 부채(extensive credits and debits)”로 정의하는 데(Coleman, 1988: S103), 콜만의 사회적 자본은 이 포괄적인 신용과 부채의 관계망에 다름 아니다. “신용과 부채”는 합리적 선택론에서 보는 제재의 특징을 극명하게 요약해준다. 경제적 대여와 상환처럼 엄격한 등가성과 규범적 강제성이 그것이다. 이 포괄적인 대여와 상환의 관계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순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대여한 쪽으로 상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그 결과 콜만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에서 관계망의 ‘닫힘(closure)’을 강조하게 된다. 여기서 그의 ‘닫힘’은 관계의 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형적으로 닫힌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의 닫힘을 관계의 밀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sup>6)</sup>

먼저 콜만이 많은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듯, 닫힌 또는 밀도가 높은 관계망이 많은 경우 사회적 자본의 힘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신용과 부채의 상황을 확인해주는 상호 구속력만이, 즉 합리적 선택론적 시각에서의 제재만이,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효용의 차원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상호 구속력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관계 밀도가 약한)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많다. 먼저 벌써 고전적인 연구가 된 그레노베터와 버트의 약한 연결망(weak ties) 이론이 좋은 사례가 된다. 그들의 이론은 구직(求職) 시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요약하자면, 강하고 빈번한 상호 구속적 관계(strong ties)보다는 간접적으로 연관을 갖거나(가족의 친구 또는 친구의 친구) 또는 상당한 동안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느슨한 관계(weak ties)가 오히려 구직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Granovetter, 1973; Burt, 1992, 2001). 강한 연결은 강한 제재를, 약한 제재는 약한 제재를 의미할 것이므로, 여기서 제재 중심의 사회적 자본관의 설명력은 약화된다.<sup>7)</sup>

같은 맥락에서 관계 밀도가 높은 관계망 속의 사람보다는 오히려(관계

6) 이 점을 지적해준 익명의 논평자께 감사드린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논평자는 “서로 연결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감독하는 점에서는 제재가 중요하지만 서로 도와주는 보석가게들 사이에서는 어떤 제재가 나타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콜만의 이 문제에 대한 언급에 비추어(Coleman, 1988: S98-99), 그의 설명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웃 보석상이 맡긴 다이아몬드를 거짓으로 감정하고 가짜로 바꿔치기 해서 돌려준다면, 1) 적발될 경우에는 그가 영원히 그 직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직접적인 자기이해의 제재(콜만이 강조하듯, 이 보석상 커뮤니티는 친족적 또는 인종적 ‘닫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방은 단순히 직업적 추방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지만), 2) 적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장기적으로 시장과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간접적인 자기이해의 제재, 이 두 가지 자기이해에 의거한 제재에 의해 규제된다. 물론 상인들간의 직업적 우의(友誼) 또는 윤리라는 요소도 추가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콜만의 이런 설명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시장상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7) 무려 천 쪽에 육박하는 콜만의 기념비적인 저작 *Foundations of Social Theory*에서 ‘약한 연결’의 개념은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저작에서 콜만은 그레노베터를 두 차례 언급하는데, 그중 한 곳에서 콜만이 인용한 것은 그레노베터의 ‘약한 연결’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입착성(入着性, embeddedness)’에 대한 것이었다. 그레노베터의 ‘약한 연결’에 관한 논문은 매우 저명한 것으로, 콜만이 이 논문을 인용하지 않았던 것(참고 문헌에도 없다)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경제사회학에서 약한 연결과 교량적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이 나왔지만, 그 강조점은 분명 콜만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점에서 경제현상의 설명에 사회학적 시각을 보완하려 하는(넓은 의미의) 경제사회학과 경제학적 이론전체를 사회전반에 일반화시키려 하는 콜만(그리고 부르디외)의 기획은 구분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밀도가 높은) 닫힌 연결망의 군(群)들과 낮은 관계 밀도로 넓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사회적 자본이 더욱 생산적이라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Burt, 1992, 2001). 오닉스와 불렌은 여기서 닫힌 연결망을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닫힌 연결망의 군들을 연결하는 연결망을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고 있다(Onyx & Bullen, 2000). 제재와 단함을 강조하는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이렇듯 열린, 또는 교량적인 사회적 자본을 적절하게 이론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열린, 약한 연결의, 또는 교량적인 사회자본의 강점이 만개하고 있는 곳이 사이버 공간이다. 이 영역에서는 직접적인 대면관계가 전혀 없이도 한 개인이(단순히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도) 수만, 수십만의 접속자를 가질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개인간 파일공유 네트워크인 p2p 관계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제재의 제거 내지 약화가 오히려 정보공유라는 해당 사이버 공동체의 재화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이다 (Rheingold, 2002; 이원태, 2003: 172). 이러한 현상은 <제재의 강화=사회적 자본의 강화>라는 등식과 상치된다.<sup>8)</sup>

제재란 궁극적으로 교환의 관념에 기초한다. 뒤르켐의 제재에는 사회라는 외물(外物)이 가하는 제재를 개인이 수용할 때, 그 대가로 그(녀)가 그 사회로부터 수용된다는 의미에서의 교환이 전제되어 있고, 콜만의 제재란 갑이 병에게 줄 때 반드시 돌려받는다(폴리네시아의 쿨라 링이 그렇듯, 반드시 병으로부터가 아니라 정으로부터일 수도 있다), 보다 직접적인 차원에서의 개인들간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환을 주제로 한 마르셀 모스의 위대한 저작인 *Gift*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점이 딱 하나 있다(이 저작은 부르디외가 중시해온 것임을 지적해두자).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면 어떻게 되는가? 또 받은 사람이 되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스의 이론에 따르면 반드시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리고 받고 되돌려주지 않지만 제재가 따

8)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과연 탈영도적·탈전통적 신공동체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전망을 열어주는 단초인가, 아니면 전통적 사회적 관계에서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구조적으로 방기하도록 허용하는 규범적 퇴행과 사회적 파편화(fregmentation)의 온상인가에 관한 논쟁이 존재한다(이원태, 2003). 이러한 논쟁은 오프라인과 결합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규범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는 절충적인 진단으로 연결되기도 한다(Blanchard & Horan, 2000). 그러나 이러한 진단도 각 사회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다. 한국의 경우 온-오프의 연결성이 상당히 강하고, 그 근거에는 혈연, 지연, 학연이 강조 되는 문화적 풍토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연결성을 단순히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일 것이다.

르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모스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답을 주지 않는다(이러한 종류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도록 자극한다는 점이 이 저작의 진정한 위대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에는 그러한 경우들이 엄연히,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합리적 선택론자들이 종종 이론의 전거로 삼기도 하는 아담 스미스가 언급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었다면, 당신도 그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어야(ought to) 하나? 얼마를 그에게 빌려주어야 하나? 언제 그에게 빌려주어야 하나? 지금, 또는 내일, 아니면 다음 달? 얼마 기간 동안 빌려주어야 하나?(Smith, 1979: 174).

이런 경우에 정확한 답을 주는 어떤 룰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담 스미스는 단언한다. 즉 여기서는 교환의 기준, 신용과 부채의 엄밀한 감가상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간의 우정이 깊을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서로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때로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참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반면 10배, 100배로 ‘갚아’ 돌려주고도 전혀 고맙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mith, 1979). 이러한 관계에서 교환의 개념과 제재의 관점은 힘을 잃는다. 스미스가 아주 별난 예를 든 것은 아닐 것이다. 사적인 관계의 영역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가 사회과학자의 메마른 상상력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형태로 풍부하게 존재할 것이고, 앞서 거론했던 사이버상의 개인간 파일공유 네트워크나 각종 자원행위 그리고 공공적 시민행동의 많은 경우 역시 그와 같은 범주와 중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재 중심의 사회적 자본 개념으로는 이러한 영역을 설명하기 어렵다.

## V.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개념 비판

퍼트남은 개념의 이론가라기보다는 적용의 이론가다. 그는 주로 콜만으로부터 빌려온 사회적 자본 개념을 토크빌의 자치규범에 관한 논의와 연결시킨 후, 이를 이탈리아 지방자치체도의 경과에 대입시켰고(Democracy) 이 연구는 이후 사회적 자본 개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의 퍼트남 비판은 주로 이 저작의 방법론 문제에 집중한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그

의 논문들에서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정리 작업은 보이지 않는다. 그 가장 큰 후과(後過)는 이 글의 모두(冒頭)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의 논리가 자기 반증적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 역시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자본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감지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이라 정의하는데(Putnam, 1993: 167), 그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인인 신뢰와 네트워크를 각각 구체적(balanced, specific)/ 포괄적(generalized, diffuse), 수직적/수평적인 것으로 나눔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복합적임을 스스로 암시하고 있다(Putnam, 1993: 172-173). 글의 전후 맥락을 보면 포괄적 신뢰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선택적 결합이 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레비와 포르테스가 날카롭게 지적하였듯이, 구체적 신뢰와 수직적 네트워크 역시 상호성(reciprocity)과 협동(cooperation)을 낳으며 특정 집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작동과 친화성을 가질 수 있다(Levi, 1996; Portes, 1998). 이러한 구체적-수직적 관계 규범이 왜 그가 정의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틀 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인지 퍼트남은 해명하지 못한다.

또한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국가와 정치 영역을 시민사회의 수동적 반영으로 환원시켜 정치활동의 고유성과 국가영역의 주도성을 탈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그가 기반하고 있는, 토크빌-아몬드/버바(Almond & Verba)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정치문화 전통의 이념적 한계에 기인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Tarrow, 1996; Skocpol, 1996; Skocpol & Fiorina, 1999; Edwards, Foley & Diani, 2001; Scott et al., 2002). 이러한 비판은 사회적 자본 개념이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이념적, 문화적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도 연관된다(Fine, 2001). 퍼트남에 의한 이 개념의 대중화야말로 이 개념이 이데올로기화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 개념을 공적, 정치적 영역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퍼트남은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했다. 그 결과 부르디외와 콜만의 사회적 자본론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던 비영리적, 공공적 측면이 퍼트남의 이론들에서는 어느 정도 포착된다. 그러나 이 진전에는 아직 많은 불명료함과 미진함이 남아 있다. 이 불명료함과 미진함의 근원에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두 철학 전통의 애매한 동거가 있다. 먼저 방법론적 개인주의 전통으로 이는 합리적 선택론, 게임이론, 신제도주의이론이다. 다음은 정체(政

體, polity) 우선적 전통 즉, 시민적 덕성(또는 민주적 관습)은 좋은 정체에서 유래한다는 공화주의적 전통인데, 퍼트남은 이를 토크빌을 경유해서 자유주의적 형태로 받아들였다. 이 두 이론 전통은 상극적이다. 이런 상극을 개념적 정리 작업 없이 뒤섞어 놓았으니 여러 문제제기와 비판과 혼란이 이어졌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먼저 방법론적 개인주의 시각에서 퍼트남이 사회적 자본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한 사실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Portes, 2000). 우리가 보기에 이 비판은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개념적 엄밀성의 수준에서 포르테스는 퍼트남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개념 전반의 지형, 그리고 발전 방향에 있어서 포르테스는 퍼트남이 이론 지점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포르테스가 보기에 사회적 자본이란 결국 개인적 차원의 속성(attributes of individuals)일 뿐인데, 퍼트남은 이를 집단적 차원의 속성(attributes of collectives), 즉 시민적 정치문화(civic political culture)로 확장하고 있지만, 이 집단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이란 그 인과적 근거가 통계적으로 의심스럽다(spurious)고 지적한다(Portes, 2000).

포르테스는 부르디외와 콜만, 특히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이론을 충실하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직접적인 자기이해의 추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회관계를 사회적 자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부르디외적, 콜만적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색맹 현상일 뿐이다. 시민적인 것(the civil, the civic), 이는 집단속성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개개인간의 관계 속에서 표현된다. 이 지점에서 개인속성과 집단속성의 구분은 기계적, 분절적이다. 우리가 보기에, 포르테스는 퍼트남이 사회적 자본을 정치문화 영역으로 확장한 것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즉 개인적 속성의 사회적 자본만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이렇듯 다양한 사회자본을 측정할 퍼트남의 척도(measure)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야 옳았다.

물론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척도를 먼저 제시해왔던 점에서도 선구적이다. 그러나 포르테스가 지적했듯 이 척도에는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Democracy*에서는 이 척도가 정치적, 경제적 성취로 제시된다. 그러나 성공적 결과가 사회적 자본의 척도가 된다면 이는, 포르테스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의 사회적 관계는 모두 사회적 자본이 되는 셈이고, 반대로 낙후된 나라에는 사회적 자본이 미약하거나 부재하다는, 아무런 분석적 의미가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결과론적 입장을 취하는 한, 종교와 자본주의간의 관계에 대한 소위 ‘베버 테제’의 널뛰기식 운명<sup>9)</sup>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이론적 파산을 면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트남은 신문구독률, 타인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정도를 대안적 척도로 제시했다(Putnam, 1996). 그러나 여전히 정치경제적 성공을 종속변수로 놓음으로써 그 인과관계가 의심스럽다는 포르테스의 날카로운 비판을 초래했다. 정치경제적 성공을 설명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퍼트남이 제시한 몇 가지 척도가 반드시 정치경제적 성공을 유도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Portes, 2000).

결국 퍼트남 사회자본론의 대중적 성공의 비결인 <사회적 자본=정치경제적 성공>이라는 등식구조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틀은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과학적 이론은 산출하지 못한다. 정치경제적 성공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독립변수)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설정한 후 그 목적에 맞추어 측정기준을 조작(operation)하는 순서는 옳지 못하다. 먼저 그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먼저 이론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그 후에 경험적 측정 기준을 찾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이렇듯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과 척도를 적용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일례로 국내 상황에 그의 틀을 적용해 본 연구를 살펴보자. 최근 장수찬과 이선미의 연구는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적 시민단체 회원들의 ‘타인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동창회, 계모임 참여자들의 그것보다 오히려 낮거나 또는 큰 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장수찬, 2002, 2004; 이선미, 2004). 이러한 경험적 조사결과는 연구자들을 당황시키는 것이었고(물론 애초에 그런 각도로 현상에 접근한 문제의식 자체가 값진 것이지만), 이러한 예상 불일치의 결과를 이들 연구자들은 서구의 기준이 한국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그

9) ‘베버 테제’란 특정 종교윤리와 자본주의 발전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 입장은 막스 베버의 저작을 그런 도식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테제’를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유교에 적용하고자 했던 입장이 처했던 난점을 아주 간략히 말하자면 이렇다: 동아시아 경제가 침체했던 것도 유교 탓이고, 네 마리 용 이래 약진했던 것도 유교 탓이며, IMF를 맞아 다시 수렁에 빠진 것도 유교 탓이고, 이제 앞으로 회복하여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면 또 다시 유교 탓일 것이다. 이 ‘베버 테제’에서 유교는 천사와 악마의 역할을 숨 가쁘게 바꾸어 하기에 너무 바쁘다. 이 널뛰기는 물론 유교만의 운명은 아닐 것이다. 가톨릭이 이미 그런 논란에 휩싸였었고, 앞으로 불교, 이슬람, 힌두교도 동일한 경로를 밟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베버 저작에 대해 권위 있는 해석을 내려온 텐부룩은 베버의 저술 전 체계의 핵심 논지는 위와 같은 ‘베버 테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Tenbruck, 1980). 베버의 저작에는 소위 ‘베버 테제’로 통속화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베버의 문제의식을 종교(또는 넓은 의미의 문화)와 경제(또는 자본주의 발전)의 인과관계로 좁혀 보는 것은 확실히 너무 협소해 보인다는 점에서 텐부룩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러나 문제의 근원은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그 측정 척도 자체에 있었던 것이고, 이 문제는 서구든 한국이든 적용할 때 동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수성이 아니라 이론이 문제였던 것이다. 좋은 이론은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주면서 보편으로 접근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퍼트남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 일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회자본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착되는데, 퍼트남은 이 점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의 의식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다시 말하면 의식이 아닌, 행동 속에서<sup>10)</sup>)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퍼트남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모든 유형의 사회적 자본에서 동일하다. 이 문제를 각각 살펴보자.

먼저 그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란 말하자면 시민적, 정치 참여적 사회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회자본이다. 이렇게 좁혀 본다 하더라도, 그가 이러한 특정의 사회자본의 척도로 제시한 신문구독률이나 신뢰도는 그 특정한 유형의 사회자본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데도 정확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자체로 어떤 사회적 관계도 나타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종류의 신문 잡지를 구독하면서 외톨박이로 지내는 사람도 있겠고, 자기 사회의 '타인 및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혁적 시민행동에 나서는 사람<sup>11)</sup>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앞의 퍼트남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척도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의미있게 남는 것은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 정도일 것이다.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 결사체나 시민행동에의 적극적 참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뢰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척도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어떤 성격의 결사체인지, 어떤 성격의 시민행동인지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 자체가 유형 분류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서로 다른 사회적 자본의 성격에 따라 활동하는 결사체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결국 사회적 자본의 측

10) 의식 속의 신뢰는 일정한 문화적 상황 속에 있고, 이 지표는 실제 행동 속의 신뢰도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로는 야마기시(Yamagishi, 1988), 김용학·손재석(1998) 참조. 이 연구의 한계는 이론모델을 최대수익을 얻기 위한 게임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적인 시민행동의 신뢰도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신뢰 역시 어떠한 성격의 신뢰이냐에 따라 측정대상과 척도가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신뢰란 물론 사회적 자본의 구성부분이므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11) 장수찬과 이선미의 '의외의' 연구결과가 실제로 지적해주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만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며, 유럽과 미국의 사회운동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지적되어왔다(Snow, Rachford, Worden & Benford, 1986).

정을 위한 척도는 지금보다 훨씬 분화된 수준에서 정밀하게 재고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근원은 두 가지 상이한 이론 전통—방법론적 개인주의(합리적 선택론)와 정체(政體) 우선적 시각(공화주의)—의 모호한 병렬에 있다고 앞서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혀보기로 하자. 페트남의 주저인 *Democracy*의 핵심 주장은 <시민적 전통=사회적 자본>이라는 등식, 그리고 이 <시민적 전통=사회적 자본>이 <민주 제도의 성공>을 결과했다는 인과론, 두 가지다. 그 서술 순서를 보면, 먼저 1-4장에서 이탈리아 지자체의 제도성취를 양적 지표를 통해 <북=성공, 남=실패>로 갈라놓고, 그 원인을 “근 일천년 전”으로 소급되는 “공동체적 공화제 전통” 또는 “시민적 전통” 즉 르네상스 도시국가의 역사에서 찾으려(5장), 결론에 이르러 이 “시민적 전통”을 사회적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6장). 이 책이 오늘날까지 읽히는 유일한 이유가 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결론 이전에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책의 논증구조의 부자연스러움을 말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논증 방식에 대한 필자의 고심을 읽을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먼저 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제도적 성공의 원인으로 미리 설정되었다는 데 대한 문제는 앞서 지적하였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의 논리적 상충성, 불완전성에 있다. 이러한 결함은 그가 20세기 후반의 사회현상의 원인을 “근 일천년 전”의 역사적 사실에서 찾겠다는 증명방식의 무리함과, 그러한 역사적 전통을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리로 결국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먼저 르네상스 공화제 전통을 현대 정치문화의 기원으로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그 역사가 놓여진 구체성의 풍부한 맥락으로부터 탈각시키는 또 하나의 환원론이라는 점에서 이중의 오류다. 페트남의 북부 이탈리아 중세 도시국가에 대한 묘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적 정치문화를 강력하게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와 암시는 시대착오적(anachronistic)이다.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가 르네상스의 터전이었음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시민적 전통’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시민적 정치

12) 스카치폴과 피오리나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점이다(Skocpol, 1996; Skocpol & Fiorina, 1999). 시민사회내의 결사체에는 풀뿌리 차원의 참여에 기반하고 민주주의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상층 엘리트간의 대표성 없는 권익주장 단체도 있고, 극우적인 인종주의나 근본주의적 종파주의 단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결사체의 활동 양적 빈도만을 가지고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이를 민주주의 성취와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정치체제는 순수한 (근대적) 공화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주정적 귀족제에 가까운 것이었고, 시민들간의 사회적 관계는 신분적인 후견인주의(patron-clientelism)에 의해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었다. 퍼트남의 용어를 빌면, 수직적/구체적 관계가 수평적/포괄적 관계를 압도하고 있던 사회였다(엄격하게 말해서,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포괄적 사회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적 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Trexler, 1991; Weissman, 1982). 퍼트남의 이 시기에 대한 묘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하이드와 웨일리의 저작들이 70년대에 이루어진 비교적 오래 된 연구라는 한계도 있지만, 중세 도시국가 연구는 아직 많은 점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이들 저자들의 신중한 경고를 퍼트남이 너무 쉽게 뛰어넘고 있다는 문제가 더 커 보인다. 위에서 참고로 제시한 트렉슬러와 와이즈먼의 저작들은 당시 시민들간에 교환된 서신들에 기초한 것으로 당시의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미시적 차원에서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다. 일반사는 아니지만, 이 글의 우리의 관심사에 관해서는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제도의 제정, 출범을 자기이해의 동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퍼트남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 그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가 그러한 시도를 했다고 보면서도, 이 입장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집합행동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실제로 제공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에 결국 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신제도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제도를 최초로 필요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들이 그런 제도의 창출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공평무사한 ‘입법자’란 공평무사한 흡스적 군주(또는 주권, sovereign)만큼이나 문제거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Putnam, 1993: 166). 아쉽게도 퍼트남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그쳤을 뿐,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 글에서 지적하는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사회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온 사회적 자본 개념을 끌어들이면서 “신제도주의”가 설명하지 못한 문제를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그가 빌려온 사회적 자본 개념 자체야말로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결과는 그가 지적했던 ‘신제도주의’의 한계를 그 자신이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먼저 그는 자기이해(self-interest)와는 구분되는 사회적 관계 자원으로 연대(solidarity)를 지적하고 이 양자간에는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개념적 매개는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의 규범”이고, 이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되는 교환(repeated exchange over a period of time)”에 의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Putnam, 1993: 172). 그렇다면 이렇듯 자기이해를 넘어서는 호혜적 행위를 일정한 시간을 통해 가능하게 하여주는 그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시발되었는가? 그는 여기에 대해 “5장에서 살펴보았듯, 북부이탈리아의 시민적 전통이 협력의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저수지를 제공했다”고 대답한다(Putnam, 1993: 174). 결국 ‘근 일천년 전으로 소급되는’ 역사적 시원에 의지한다. 결국 6장에서 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을 자기이해만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는 다시 5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5장의 논리 자체도 오류다.

우선 연대를 자기이해와 갈등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정확했다. 그러나 이를 매개한다는 ‘일반적 호혜성’을 간단히 “단기적 이타주의(short-term altruism)와 장기적 자기이해(long-term self-interest)의 조합”으로 정리해버림으로써, 그는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라는 이론적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Putnam, 1993: 172). 갈등의 심층을 해부해보기보다는 갈등을 쉽게 봉합하는데 너무 바빴던 것이다. 자기이해의 동기와 이를 넘어서는 연대의 문화와 제도. 그는 이 문제를 (부정확하게도) 역사와 제도, 또는 문화와 구조간의 관계 문제라고 부르는데, 몇 쪽에 걸쳐 설명을 시도하다가 결국 이 둘간의 관계를 엄밀히 규명하는 것은 “닭과 달걀의 논쟁”처럼 “생산적이지 못하다” 하면서 슬그머니 덮어버린다(Putnam, 1993: 177-181). 그는 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한쪽으로는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과 다른 한쪽으로는 ‘협력적 전통의 역사적 저수지를 제공해준 역사적 기원’이라는 두 가지 근거에 의지하고 있고, 이 양자가 ‘닭과 달걀의 논쟁’처럼 공회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만, 그 자신의 이론적 수단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퍼트남의 이런 문제는 환원론의 확대에 근원한다. 사회과학적 설명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사실 자체는 약점이라기보다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퍼트남의 ‘전통’은 시대착오적, 탈맥락적이며,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과 똑같은 이론적 구조, 즉 환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부르디외와 콜만이 인간 행위 동기의 심연으로 들어가 자기이해라는 궁극적인 제1동기를 추출해냈던 것처럼, 퍼트남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어떤 제1결정인적 역사시점을 추출했던 것이다.

동기의 환원론은 비구체적이고, 역사적 환원론은 탈맥락적이다. 행위 동기에서 환원론이 실제의 인간 행위 동기를 단순화시키는 왜곡을 범했다면, 역사적 환원론은 특정한 역사 시기를 환원론의 입맛에 맞게 단순화, 왜곡시킨다. 원래 환원론에서 제1인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두 개의 제1인이란 형용모순

이다. 두 환원론 자체가 오류일 뿐 아니라, 그 양자는 결코 화합될 수 없다. 이 화합될 수 없는 것을 퍼트남은 그의 사회적 자본 개념 속에 애매하게 병렬시켜놓고 그 사이를 왔다갔다한다.

## VI. 결론

사회과학 개념으로는 드물게 대중적 영향력을 획득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오늘날 그 자체가 마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성공의 결정적인 독립변수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이론적 실천적 부작용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일종의 학술적 개념의 통속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인데, 그 직접적인 계기는 대중적 성공을 거둔 퍼트남의 저작 *Democracy*에 의해 비롯되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관계자원(relational resources facilitating social cooperations)’이라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sup>13)</sup> 이러한 성격의 자원이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을 먼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유형 분류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퍼트남의 문제점은 콜만과 부르디외로 거슬러 올라간다. 퍼트남은 개념의 이론가가 아니라 적용의 이론가로서 그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주로 콜만으로부터 빌려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콜만과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글에서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이라 명명한 이론적 전제(theoretical presupposition)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모든 형태의 협력적 사회관계와 그 관계의 유통매체가 되는 신뢰나 규범은 결국 자기이해라는 단일동기로 귀착된다. 콜만과 부르디외는 공히 모든 다양한 사회관계가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로 귀착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회적 자본이란 이론적으로 결국 하나이고 따라서 유형 분류될 필요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 결과 콜만과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개념으로는, 현실에서는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는 공공적이고 비영리적인 형태의 사회자본 그리고 비대면적이고 열려 있는 형태의 사회자본들을 실제 그대로 정확하게 포착하고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13)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는데(Woolcock, 1998: 189, notes 2), 여기서 제시하는 이 정의는 기왕의 여러 정의의 취지를 포괄하면서도 간명하게 요약한다.

부르디외와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의 이러한 취약점은 오히려 퍼트남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돌파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퍼트남이 이 개념을 공화주의적, 시민적 정치문화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퍼트남은 이렇듯 확장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부르디외, 콜만류의 자기이해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근 일천년 전의 역사적 ‘전통’이 오늘날의 사회적 자본의 근거가 된다는, 크게 무리한 설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무리함은 퍼트남의 ‘전통’을 실제의 살아있는 역사와는 다른, 탈맥락적인 박제로 만든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근거를 한편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동기로 설명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주어진 정치적 전통으로 설명하면서도, 막상 이 두 상이한 설명틀을 연결해줄 이론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퍼트남의 개념 확장은 이론적 약점의 확장이 되고 말았다.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의 문제점은 환원론의 이론적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환원론은 모든 현상의 원인을 어떤 단일한 요소(제1인)에 귀착시켜 현실의 구체성(다양성)과 맥락성(인과관계의 복잡성)을 박제화시킨다. 부르디외와 콜만은 행위동기의 환원론, 즉 ‘자기이해의 단일동기론’을 이론적 전제로 공유하며 따라서 여기에 수반되는 환원론의 이론적 오류를 공유한다. 여기에 퍼트남은 행위동기의 환원론에 역사적 환원론을 부가하여 오류를 확장하였고 그 두 환원론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는, 사회적 자본을 어떤 단일 요소로의 환원이 아닌 관계의 형성과정으로 설명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 작업은 남겨진 과제다.

## 참고문헌

- 강철희.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6.
- 김상준. 2002a. “예의 사회학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단서: 막스 베버의 이념적 이해(ideal interests).” 『사회와 역사』 59: 11-50.
- \_\_\_\_\_. 2002b. “사회적 자본의 유형분류.” 2002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3. “시민사회와 NGO·NPO의 개념: 공공성을 중심으로.” 『NGO 연구』 창간호: 37-68.

- \_\_\_\_\_. 2004. “성찰적 합의체제와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재구성.” 『NGO 연구』 3.
- 김용학·손재석. 1998.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계간사상』(가을): 115-131.
- 박정미. 1995.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 관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03.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유석춘 외. 『사회자본』. 도서출판 그린. pp.15-57.
- 이강현·김성경·박운애·김문정. 2003. “우리나라 여성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2(2): 207-245.
- 이선미. 2004. “자원결사체, 신뢰, 시민사회의 분절.” 2004년 한국NGO학회, 한국비영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원태. 2003a. “사이버공동체와 한국사회.” 『계간사상』(여름): 155-183.
- \_\_\_\_\_. 2003b. “사이버공동체와 정치참여: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자본의 개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2: 1-40.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 사이클: 결사체참여(civic engagement), 사회자본(social capital), 그리고 정부신뢰(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_\_\_\_\_. 2004. “변동사회의 NGO와 사회자본: 한국의 경우.” 2004년 한국NGO학회, 한국비영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소라. 1995.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들의 후원행위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kston III, Carl & Min Zhou. 2002. “Social Capital as Process: The Meaning and Problems of a Theoretical Metaphor.” *Sociological Inquiry* 72(2): 285-317.
- Baron, Stephen, John Field & Tom Schuller (eds.).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er, Gary. 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9-49.
- \_\_\_\_\_. 1964.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nchard, Anita & Tom Horan. 2000. “Virtual Communities and Social Capital.” pp.6-21 in *Social Dimens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Issues for the New Millennium*. Hershey, USA and London: Idea Group Publishing.

- Booth, John & Patricia Richard. 1998. "Civil Society, Political Capital, and Democratization in Central America." *The Journal of Politics* 60(3): 780-800.
- Bourdieu, Pierre. 1967. "Systems of Education and Systems of Thought." *Social Science Information* 14(3): 338-358.
- \_\_\_\_\_. 1986a(1983). "The Forms of Capital." pp.241-258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_\_\_\_\_. 1986b.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 1988. *Homo Academicu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0(1970).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 \_\_\_\_\_. 1991. "Supplement. Distinction Revisited: Introduction to an East German Reading." *Poetics Today* 12(4): 639-641. Bourdieu, 1998에 재수록.
- \_\_\_\_\_. 1992.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4. "Rethinking the State: Genesis and Structure of the Bureaucratic Field." *Sociological Theory* 12(1): 1-18. Bourdieu, 1998에 재수록.
- \_\_\_\_\_. 1998. *Practical Reason*. Stanford: Stanford UP.
- Burt, Ronald.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in Nan Lin, Karen Cook & Ronald Burt (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Calhoun, Craig. 1993. "Habitus, Field, and Capital: The Question of Historical." in Craig Calhoun, Edward LiPuma & Moishe Postone (eds.). *Bourdieu: Critical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120.
-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n, Xiangming. 2000. "Both Glue and Lubricant: Transnational Ethnic Social Capital as a Source of Asia-Pacific Subregionalism." *Policy Sciences* 33: 269-287.
- Dasgupta, Partha & Ismail Srageldin (eds.). 2000.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Edwards, Bob, Michael Foley & Mario Diani (eds.). 2001. *Beyond Tocqueville: Civil Society and the Social Capital Deb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nover and London: Tufts University.
- Fine, Ben. 2001. *Social Capital versus Social Theory*. London: Routledge.
- Friedman, Debra & Michael Hecter. 1990.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Rational Choice Theory." pp.214-229 in George Ritzer (ed.). *Frontiers of Social Theory: The New Synthe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ucks, Ester, Lorraine Minnite & Robert Shapiro. 1999. "Politic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http://www.sipa.columbia.edu/REARCH/Paper/99-3.pdf>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99. *The Great Disrup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_\_\_\_\_.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P.
- Held, Virginia. 1968. "On the Meaning of Trust." *Ethic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78(2): 156-159.
- Huntington, Samuel & Lawrence Harrison (eds.). 2000. *Culture Matters :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 Johnson, Harry. 1960. "The Political Economy of Opul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6: 552-564.
- Kant, Immanuel. 1964. *Groundwork of the Metaphysic of Morals*. New York: Harper Torchbooks.
- \_\_\_\_\_. 1993.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New York: Macmillan.
- Levi, Margaret.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and Society* 24(1): 45-55.
- Lewis, J. David & Andrew Weigert.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 967-985.
- Lin, Na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487.
- \_\_\_\_\_. 2001.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in Nan Lin, Karen Cook & Ronald Burt (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Lin, Nan, Karen Cook & Ronald Burt (eds.).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Luhmann, Niklas. 1988.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pp.94-107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 \_\_\_\_\_. 1995. *Social System*. Stanford: Stanford UP.
- \_\_\_\_\_. 1979. *Trust and Power*. New York and Toronto: John Wiley & Sons.
- Marshall, Alfred.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arx, Karl. 1977. *Capital* V.1. New York: Vintage Books.
- Onyx, Jenny & Paul Bullen.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6(1): 23-42.
- Platteau, Jean-Philippe. 1996. "Behind the Market Stage Where Real Societies Exist."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0: 533-577, 753-817.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_\_\_\_\_. 2000.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 1-12.
- Portes, Alejandro & Julia Sensenbrenner.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320-1350.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_\_\_\_\_. 1996.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Civic America." *American Prospect* 24: 34-48.
- \_\_\_\_\_. 2000. *Bowling Alone*. New York: Touchstone Book.
- Rawls, John. 1971.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P.
- \_\_\_\_\_.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P.
- Rheingold, Howard. 2002. *Smart Mobs*. Cambridge: Perseus Publishing.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6.
- \_\_\_\_\_. 197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New York: Free Press.
- Scott, L. et al. (ed.). 2002. *Social Capital-Critical Perspectives on Community and 'Bowling Alon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kocpol, Theda. 1996. "Unravelling From Above." *The American Prospect* 25: 20-25.
- Skocpol, T & Morris Fiorina (eds.). 1999.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mith, Adam. 1976(1791).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Clarendon.
- Smith, Stephen & Jessica Kulynych. 2002. "It May be Social, but Why Is It Capital? The Social Construc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Politics of Language." *Politics and Society* 30(1): 149-186.
- Snow, David, Burke Rochford, Steven Worden & Robert Benford.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oc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464-481.
- Tarrow, Sidney. 1996. "Making Social Science Work Across Space and Time: A Critical Reflection on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2): 389-397.
- Tenbruck, F. 1980. "The Problem of Thematic Unity in the Works of Max Weber."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1(3): 316-351.
- Trexler, Richard. 1991. *Public Life in Renaissance Florence*. Ithaca: Cornell UP.
-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issman, Ronald. 1982. *Ritual Brotherhood in Renaissance Florence*. New York: Academic Press.
- Wilson, John.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World Bank. 1997. *Expanding the Measure of Wealth: Indicators of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Washington: World Bank.
- \_\_\_\_\_. 1998. “The Initiative on Defining, Monitor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Text of Proposals Approved for Funding.” World Bank,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no.2.
- Wuthnow, Robert. 1991. *Acts of Compassion*. Princeton: Princeton UP.
- \_\_\_\_\_. 1995. *Learning to Care*. New York: Oxford UP.
- Yamagishi, Toshio. 1988. “The Provision of a Sanctioning System in the U.S. and Japa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265–271.
- [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

김상준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경희대 NGO 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 관심은 ‘유교적 근대성’의 이론 구성과 성찰성 개념의 확장이다. E-mail: sangjun@khu.ac.kr

(2004. 7. 9 접수; 2004. 12. 10 채택)

algorithm of Alice in Wonderland, ‘it takes all the running you can do to keep in the same place,’ the ‘Red Queen race’ model introduced in this paper allegorically captures the logic of the equilibrium of “excess” in information asymmetry. This paper shows how this “excess” equilibrium model can explain consistently in a single framework about various, apparently different phenomena such as sex selection in nature, dynamic work efforts in labor market an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problems engaged in status competition and social distinction. Further, in the same logic, this paper tries to apply the excess equilibrium model to explain in a fresh fashion about the advent of modern market and of the modern ‘habit of economy,’ especially through reinterpreting the Weber thesis.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was a fundamental turning point around the advent of modern market concern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cessive race of ‘conspicuous waste’ in pre-modern society and the excessive of productive efforts in modern times, and that this contrast can be characterized as the same excess equilibrium point of Red Queen race, though in a contrasting direction.

Key Words: information asymmetry, social distinction, status emulation, market

## **A Critique of Bourdieu’s, Coleman’s and Putnam’s Concept of Social Capital**

*SangJun Kim*

Kyung Hee University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coined by Pierre Bourdieu and James Coleman, and popularized by Robert Putnam, is being widely circulated. The scope of circulation includes not only academicians, it also extends to governmental policy makers, economic and financial analysts, and even to influential journalists. However, as much as the uses of the concept enlarge, confusions and suspicions about it also grow. The lack of precise meaning, very loose and confusing applications of the concept as well as its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ical implications have been pointed out by many critical reviewers.

This essay argues that above mentioned problems are originated from the theoretical problems of Bourdieu's, Coleman's and Putnam's concept of social capital, which are, the fallacies of reductionism. This essay finds the motivational reductionism of self-interest as the theoretical presupposition of both Bourdieu's and Coleman's social capital. This reductionist presupposition blinds the varieties of social relations while positioning every social relationships within the reach of social capital. Bourdieu's and Coleman's social capital especially have weaknesses in explaining non-profit-seeking, public caused, and post-materialist modes of social relations. Putnam, on the other hand, has attempted to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to civic culture, while relying on Bourdieu's and Coleman's motivational reductionism of self-interest. This is proved as an impossible mission. The proof is Putnam's backdoor import of the idea of the (North-Italian) civic tradition tracing back to the past of one thousand years ago. Putnam's 'civic tradition' plays the similar role to 'self-interest' in Bourdieu's and Coleman's theories. Putnam's tracing back to the past reproduces Bourdieu's and Coleman's reductionism in other way, which is, historical reductionism. Putnam doubles Bourdieu's and Coleman's fallacies of reductionism.

Key Words: social capital, Pierre Bourdieu, James Coleman, Robert Putnam, motivational reductionism of self-interest, historical reductionism of tradition

## **Social Capital from the Integrative Perspective of Trust and Reciprocity:**

### **Construction of Ideal Types of Social Capital**

*Jongryul Choi*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ersity

Interest in social capital has increased in Korean sociology recently. Perspective on social capital can be broadly divided into camps: economic sociology and sociology of development. The camp of economic sociology advocates institutionalization of distrust, whereas the camp of sociology of